

페루 신자유주의의 함정: 도런페루의 약탈적 기업 전략*

오 삼 교
위덕대학교

오삼교(2014), 페루 신자유주의의 함정: 도런페루의 약탈적 기업 전략.

초 록 이 글은 신자유주의가 지역의 다양한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라는 보다 큰 전망의 연구 시각에서 외국 자본의 약탈적 축적논리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제공하는 정책 공간을 어떻게 약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1997년 페루 정부의 민영화를 통해 라오로야(La Oroya) 금속제련 단지를 인수한 미국계 도런페루(Doe Run Peru)의 약탈적인 기업 전략과 행태는 이 점에서 다국적기업의 기만적이고 인권 유린적인 축적 논리를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도런페루는 페루 정부와 약속한 환경정화 프로그램의 이행을 두 차례나 연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희생하여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동원하여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피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렌코그룹의 미국에서의 기업 행태를 그대로 페루에서도 되풀이 하여 경영이 어려워지자 파산을 통해 환경부담 비용을 회피하려 하였다. 미국 법정에서 라오로야 피해 아동들의 피해 보상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페루 정부가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심판소에 제소하여 회사 측이 환경 의무 불이행 책임을 페루 국가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도런페루의 약탈적 기업행태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세계적 기업이 자유 시장논리에 따라 성장과 발전, 고용과 번영을 창출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 미국 렌코그룹의 자회사인 도런페루의 약탈적 기업 전략은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해 성장을 추구한다는 신자유주의 발전 정책이 국가와 지역 주민에 부메랑으로 작용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라오로야의 사례는 페루 신자유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노정하는 사례로 페루 광산부문의 지속적 성장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페루, 신자유주의, 라오로야, 도런페루, 환경 갈등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I. 들어가는 말

1. 라오로야 이야기

미국 렌코그룹(Renco Group)의 자회사인 도런페루(Doe Run Peru)는 1997년 라오로야 제련단지를 운영하던 국영기업 센트로민(Centromin)을 인수하면서 PAMA(Programas de Adecuación y Manejo Ambiental: 환경관리개선프로그램)를 10년 내에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여러 차례 이행 기간을 연장하면서 주민 건강보다는 회사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였다. 특히 가장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황산처리 공장 건설을 프로그램 종료 단계로 미루면서 대기 중에 중금속을 계속 배출함으로써 라오로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 라오로야는 도런페루의 환경 경시적 태도로 2006~2007년 블랙스미스(Black Smith)가 지정한 세계 10대 오염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나아가 주민들에게 PAMA 완수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공장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위협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회사를 지지하고 기한 연장을 위해 주민들이 시위에 나서도록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도시 경제의 대부분이 도런페루의 제련단지에 의존하던 라오로야의 주민들은 건강을 담보로 눈앞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인질의 처지로 전락하였다.¹⁾

뿐만 아니라 회사와 회사에 생계를 의지하는 종업원들은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일부 주민들을 괴롭히고 위협하였다. 라오로야의 일부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리마(Lima)와 미국의 환경 및 인권 NGO들이 지원에 나서면서 라오로야의 오염 문제는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회사의 전횡을 눈감아 온 페루 정부 역시 회사 측의 지속적인 PAMA

1) 수백 년 전 잉카 왕 아따우알빠(Atahualpa)는 스페인 정복자 빠사로에 포박되어 살려주는 대가로 금을 바칠 것을 강요당하고 금을 바치고서도 결국은 사형을 면할 수 없었다. 배반당한 아따우알빠는 불타죽으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잉카의 믿음에 따라 화형만은 면하고자 죽기 전에 가톨릭으로 개종해야 했다.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서도 거액의 보상을 요구받은 페루 국가와 건강을 담보로 생계를 이어온 라오로야 주민의 처지는 금과 생명을 내어주면서도 정복자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아따우알빠의 굴욕적 처지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완료 기한을 무작정 연장만 해줄 수는 없게 되었다. 회사 측이 페루 정부가 제시한 연장 조건을 거부하면서 결국 정부 역시 도런페루에 대립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국제 상품가격 하락의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진 도런페루는 2009년 초 운전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파산을 선언하였다. 파산은 단순한 경영난의 문제라기보다는 모회사인 렌코와 렌코를 가족기업의 형태로 소유한 미국의 부호인 레너트(Ira Rennert)의 전형적인 축적 수단이었다. 레너트는 자회사에서 지주회사로 거액을 이전하고 회사가 부실해지면 파산신청을 통해 회사를 보전하면서 부채 의무는 감면받는 수법을 되풀이한 인물이었다.

2007년 도런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주리 주에 라오로야의 피해 아동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 측의 피해보상 가능성이 커지자 회사는 이러한 피해는 페루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 4월 페루 국가를 상대로 2009년 발효된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여 8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 보상을 요구하였다. 환경개선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페루 정부에 전가함으로써 페루 국민의 세금으로 회사의 의무 태만을 보상받으려는 약탈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금까지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국제 중재심판소의 패널들이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도런페루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온 페루 정부는 빚 주고 뺨 맞은 꼴이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소송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이었다는 점에서 페루 정부는 자승자박을 자초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라오로야와 신자유주의

이 글은 신자유주의가 지역의 다양한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라는 보다 큰 전망의 연구 시각에서 외국 자본의 약탈적 축적논리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제공하는 정책 공간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최근 많은 학자들이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규제완화, 생산과

노동의 유연성, 자본 투자와 무역의 개방, 국가의 재정 긴축, 민영화 등)의 도입 및 집행과정이 국가와 지역과 부문에 따라 차이가 크며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국가의 경제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특징,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해 수많은 신자유주의 변종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Ong 2007; Weiss 2010; Brenner et al. 2010; Simmons 2006).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 자체의 일반적 공통성을 제외하고 국가별 정책 수용과 작동방식이 균일한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가와 부문에서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투자의 논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는 정책 패키지의 내용에서 자동적으로 유추하기 어려우며 여러 다양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검증이 필수적이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신자유주의 국가의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외국 기업의 행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신자유주의를 서구 자본주의의 시장 확대 전략으로, 특히 민영화를 통한 직접 투자확대 전략으로 이해한다면 다국적 기업은 국경을 넘어 기능하는 신자유주의 공화국의 일등시민으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특권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분석은 국가의 규제완화를 통해 행동 반경을 크게 넓힌 특권적 존재로서의 기업의 행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축적활동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접근(bottom-up approach)”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드러내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가나 지역의 지지와 반대의 지형을 탐색하는데도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페루 정부의 민영화를 통해 라오로야(La Oroya) 금속제련 단지를 인수한 미국계 도런페루의 약탈적인 기업 전략과 행태는 이 점에서 다국적기업의 기만적이고 인권 유린적인 축적 논리를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주민의 건강을 희생시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런페루의 기업행태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세계적 기업이 자유 시장논리에 따라 성장과 발전, 고용과 번영을 창출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미국 렌코그룹의 자회사인 도런페루

의 약탈적 기업 전략은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해 성장을 추구한다는 신자유주의 발전 정책이 국가와 지역 주민에 부메랑으로 작용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라오로야의 사례는 신자유주의 국가가 스스로의 정책에 발목을 잡힌 사례로서,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열어 놓은 새로운 시장을 다국적기업이 얼마나 약탈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가는 보여주는 사례로서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라오로야의 오염과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들이 나와 있다. 납 농도 조사 등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보고서를 제외하면 도런페루의 라오로야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환경오염에 대한 NGO들의 보고서가 대부분이다. 이들 보고서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라오로야의 오염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다룬 후 정부와 회사의 행태, 지역사회와 NGO의 대응 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Scurrah et al. 2008; Laplante 2010; FIDH 2012; Tucker 2012; De Echave 2013). 도런페루의 행태를 인권과 사회정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Valencia(2012)와 Fraser(2011)의 연구가 있으며 모회사인 렌코그룹이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해서는 De Echave(2013)와 Tucker(2012)의 연구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도런페루의 행태를 모회사인 미국 렌코그룹의 기업전략과 연관 지어 자세히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으며 이 글은 이 점에서 렌코그룹의 약탈적 기업 행태를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되지 않고 있는 페루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전술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라오로야 제련단지의 대기 오염과 주민들의 중금속 중독을 둘러싼 외국 다국적기업과 페루 국가, 라오로야 주민, 환경 및 인권 NGO들 사이의 갈등 과정을 분석하고 국가와 기업, 지역 시민사회 및 초국가 환경 및 인권 네트워크의 전략과 선택, 역할을 검토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인 외국 자본이 단순히 신자유주의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환경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 주민들을 회사의 이익에 유리하게 조종하고 통제함으로써 지역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한 점, 그리고 도런페루의 모회사인 렌코그룹이 미국에서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연방정부의 제재대상에 자주 올랐으며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 파산 신청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환경 부담비용을 회피해 온 과거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라오로야의 광산 도시로의 발전 과정과 민영화 과정에서 도런페루가 수용한 PAMA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라오로야 제련소가 초래한 환경오염이 주민 건강에 미친 피해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초국가네트워크의 전략과 행동, 이에 대응하는 도런페루와 페루 정부의 대응을 검토한다. 이어서 도런페루의 약탈적 전략을 PAMA의 지속적 연장 시도와 파산 결정, 모회사인 렌코의 미-페루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에 따른 국제중재심판소 제소 등을 통해 분석한다. 결론으로는 도런페루와 모회사인 렌코의 약탈적 기업전략이 페루 신자유주의 정책에 제기하는 문제와 대안의 모색에 대해 갖는 전망을 검토한다.

II. 라오로야 제련소와 민영화

1. 라오로야 제련소

라오로야(distrito de La Oroya)는 리마에서 동쪽으로 182km 떨어진 후닌(Junín) 주 야울리(Yauli) 프로빈시아의 수도로 만파로(Mantaro) 강 유역 해발 3,700m에 위치해있으며 주민은 약 3만5천명에 이른다. 이 지역은 원래 주민들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지역이었으나 1922년 미국의 세로데빠스꼬 구리회사(Cerro de Pasco Copper Corporation)가 금속제련소를 건설하면서 라오로야는 페루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제련소가 되었다.²⁾ 초기에는 주로 구리를 생산하였으나 1928년에 납을 추가 생산하고 그 후 20년 사이에 라오로야

2) 19세기 후반기에 정제에 들어선 광업부문 진흥과 외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01년에 페루 정부는 새로운 광산법을 선포하였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개발권의 장기화와 개발권 양허 제한이 사라지고 개발업자는 개발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세로데빠스꼬구리회사가 중앙고원지대 광산의 80%를 취득하면서 대규모 광산촌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이 회사가 70년 이상 이 지역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였다(Scurrah et al. 2008, 73).

제련단지에서 22개 종류의 금속이 정련 생산되었다. 제련소 굴뚝들에서는 유황, 납, 아연, 비소 등의 독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되어 엄청난 환경 피해를 유발하였다. 1925년에는 8,455두의 소와 11,048두의 양들이 죽어나갔다. 목초지와 보리밭은 모두 전멸되고 라오로야 근처의 산들은 식생의 흔적이 모두 사라질 정도였다(De Echave 2013, 7-8).

1968년 10월 3일 쿠데타로 집권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군부는 농업개혁과 국유화를 추진하여 세로테빠스꼬 역시 1974년 1월 1일 센트로민페루(Centromin Peru)라는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어 1974년에서 1997년까지 중부 안데스의 광물 생산과 제련 가공을 지배하였다. 70년대 한때 노동조합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80년대의 정치적 폭력(Sendero Luminoso)과 90년대의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노동력이 축소되고 기업의 힘이 커지면서 노조와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동시에 라오로야는 교통의 요지에 있어 다른 많은 지역과 왕래가 잦고 제련소에 외지인들이 많이 취업하게 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도 매우 취약하였다. 이는 도런페루가 라오로야 지역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이 되었다(Scurrah et al. 2008, 107).

2. 라오로야 제련소의 민영화와 PAMA

90년대 알베르토 후지모리 정부의 등장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혁이 시작되었다. 80년대의 유산인 내전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후지모리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의 구조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공기업의 해체와 민영화였으며 민간부문이 투자와 생산 활동에서 지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후지모리 정부는 이를 위해 1991년 민영화 및 외국 투자 유치, 그리고 광산부문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발표하였다.³⁾

3) 민간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인 조치로는 DL 662: Régimen de Estabilidad Jurídica a las Inversiones Extranjeras(외국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화 규범), DL 674: Ley de

한편 1990년대 초는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페루도 이런 조류에 맞추어 환경보전 법규를 정비한다. 1990년 환경법의 선포는 페루 환경법 역사에서 새로운 획을 긋는 조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보다 통합적 법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예방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환경영향 평가 같은 중요한 환경 원칙과 행정 수단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광산 및 어업부문에서 투자자들의 거부와 반대를 유발하였으며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보다 중요한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정부는 다시 1991년 8월 발표된 민간투자촉진기본법(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으로 알려진 법령 757(Decreto Legislativo No. 757)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투자에 장애가 되는 법적·행정적 제약을 제거하였다. 이 법의 규정 중 하나는 정부 부처 스스로 자신의 관할 영역에 대한 환경감독 기구를 부처 내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었다(Scurrah et al. 2008, 82). 각 부처는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생산 활동을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을 감독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에너지광산부안에는 환경문제총괄실(DGAA: Dirección General de Asuntos Ambientales)이 설치되어 환경에 대한 보존과 감시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통한 광산개발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하에서 환경부담 비용을 아끼려는 외국기업을 견제하기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한편 1993년에는 광산 및 금속부문의 환경보호법규가 통과되었다.⁴⁾ 이 법은 광산 금속부문의 환경규제 당국을 에너지광산부로 규정하였으며 에너지광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rivada en las Empresas Públicas(공기업 민간투자 촉진법), DL 757: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민간투자촉진기본법) 등이 발표되었고, 광산개발을 위해 1991년에는 Ley de Promoción de Inversiones en el Sector Minero(광산부문투자촉진법 Decreto Ley 708), 1992년에는 Texto Único Ordenado de la Ley General de Minería(광산부문 기본법)가 제정되었다(Scurrah et al. 2008, 80).

4) Decreto Supremo 016-93-EM(Reglamento para la Protección Ambiental en la Actividad Minero-Metalúrgica: 광산-금속부문 환경보호규제법)

산부는 관련 법규를 결정하고 광산조업지에서의 환경 영향을 감독하고 필요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유일한 정부 기구였다. 이 법은 세 가지 환경 규제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는데 1) 광산개발권 소유자의 탐사 및 채굴단계에서 폐기물 및 대기 오염 배출 정보 제공 의무 2) 조업권자의 PAMA 시행의무 3) 채굴 계획단계에서 EIA(Estudios de Impacto Ambiental: 환경영향평가) 제출 의무 등이 그것이다. 1996년에는 대기오염과 광산금속부문의 폐수에 대한 최대허용치(límites máximos permisibles: LMP) 제도가 도입되었다.⁵⁾

PAMA는 환경오염 수준을 낮추기 위해 대기오염과 폐수 방출치가 최대허용치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비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였다. PAM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 제련이나 소결 과정을 포함하는 조업은 시행기간이 10년 이내에, 제련이나 소결 과정이 없는 광산 조업은 5년 이내에 시행해야 하며 2) PAMA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은 매년 회사 매출액의 1%를 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Scurrah et al. 2008, 83). 라오로야 제련단지의 PAMA는 1996년 8월 센트로민페루가 제출하여 97년 1월 에너지광산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8월에 다시 수정되었다.

한편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1997년 10월 국영기업인 센트로민페루는 미국의 도런사(Doe Run Company)에 매각되었다.⁶⁾ 도런은 북미 최대의 납 생산업체로 미국 미주리와 페루 라오로야에 납 제련소를 소유하고 있다. 도런은 미국 렌코그룹의 소유로 렌코는 미국의 역만장자인 아이라 레너트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이다. 도런은 라오로야 제련단지를 인수하면서 페루에 자회사인 도런페루를 설립하고 도런페루를 통해 PAMA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약

5) 신자유주의 정부 하에서 도입된 일련의 환경관련 법규는 신자유주의 도입의 취지와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충돌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나 도입과정이 국가나 부문별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개된 것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적 필요와 국제적 규범의 확산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 중 국가에 필요부분만을 상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신자유주의 확산의 비균질성과 통치기술상의 논리에 대해서는 Ong(2007), 신자유주의 확산의 여러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Simmons et al.(2006) 참조.

6) Doe Run Company는 Doe Run Resources Corporation의 다른 이름으로 같은 회사.

속하였다. 민영화 이후 PAMA 이행을 위해 센트로민페루가 2,410만 달러, 도런페루가 1억 76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De Echave 2013, 13). 센트로민페루가 부담하기로 한 PAMA 부분은 훼손된 환경의 복구였으며, 도런페루의 책임은 새로운 환경 기준에 맞추어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III. 라오로야의 오염과 주민 피해를 둘러싼 갈등

1. 오염과 주민들의 중금속 중독

라오로야의 환경오염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20년대부터 이미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였다. 1950년대에 인근 강에서 죽은 송어가 떠다니고 70년대 센트로민페루가 제련소를 운영할 때에도 주민들은 목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며, 1985년도에도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마치 눈송이처럼 땅에 내려앉았다”는 증언이 있다(Valencia 2012, 9-10). 그러나 90년대까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제기가 별로 없었다. 90년대 이전에도 납 중독 사례가 있고 사망자도 있었으나 오염에 대한 문제제기는 90년대 이후부터였다. 70년대 제련소의 노조 활동이 임금인상과 생활조건의 개선에 집중되었고 민영화와 함께 일자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고용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 회사의 지배력이 지역 시민사회를 압도하는 공장도시의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시기가 90년대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로야의 환경과 보건문제를 처음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환경 및 인권 NGO들이었으며 이들은 특히 라오로야 주민들의 납중독을 특히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Consorcio UNES(Unión para el Desarrollo Sustentable)라는 지역 NGO들의 연합체가 대외적으로 발표된 최초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48명의 임산부와 30명의 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혈액 중 납 농도를 측정한 결과 임산부는 $39.49\mu\text{g/dL}$, 아동은 $41.81\mu\text{g/dL}$ 의 중독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 혈중 납 농도 기준치가 $10\mu\text{g/dL}$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었다(FIDH 2012, 10). 심각한 납 중독은 같은 해 보건부의 추가조

사에서도 확인되었다.⁷⁾

문제가 커지자 2001년 회사 측에서도 5,062명의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대동소이하여, 이들의 평균 혈중 납 농도는 $17.7\mu\text{g/dL}$ 이었으며 제련소 인근에 거주하는 1,198명은 $25.7\mu\text{g/dL}$ 이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납 농도가 높아 3세 이하 아동에게서는 최고 $36.7\mu\text{g/dL}$, 4세에서 6세 사이 아동에게서는 최고 $32.9\mu\text{g/dL}$ 이 검출되었다(FIDH 2012, 11). 회사는 오염이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중앙 도로의 교통량 때문이며, 건강 문제도 제련소의 80년 역사와 주민들의 나쁜 습관 특히 불결한 생활습관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습관과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사는 목욕탕 건설, 공중 세탁소, 매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방송을 통한 개인위생 캠페인을 벌였으며, 예방 조치는 순전히 개인과 관습의 문제라고 강조하였다(Scurrah et al. 2008, 87).

회사 측의 면책성 주장에 대해 지역의 가톨릭교회가 도런페루의 모회사가 있는 미국 미주리 주에 소재한 제수이트 계열의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재조사를 주선하였다. 특히 제련소에서 내뿜어내는 독성 증기의 역할을 가려내기 위해 라오로야에서 45마일 떨어진 라콘셉시온(La Concepción) 지역과의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라오로야와 라콘셉시온 지역의 납 농도는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4~2008년간에는 도런페루, 후닌 주정부, 보건부(MINSA)가 합동으로 라오로야 지역 6세 이하 아동들의 납 농도를 조사하였다. 회사 측이 자금을 지원한 이 조사들은 해마다 수치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2004년 수치는 $32.07\mu\text{g/dL}$ 이었으나 2006년 $29.24\mu\text{g/dL}$, 2008년 $22.72\mu\text{g/dL}$ 로 점차 대기 환경이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4년 수치

7) 1999년 보건부의 DIGESA(Dirección General de Salud Ambiental: 환경보건국)는 모두 547명을 조사하였다. 이중 10세 이하 아동 346명의 경우 평균 혈중 납 농도가 $33.6\mu\text{g/dL}$ 에 이르렀으며 조사 대상 아동의 거의 대부분인 99%가 세계보건기구 허용한도인 $10\mu\text{g/dL}$ 이상이었으며 86%가 $20\mu\text{g/dL}$ 이상, 18.9%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44\mu\text{g/dL}$ 를 초과하였다(Laplante 2010, 30).

〈표 1〉 라오로야와 라콘셉시온의 10 μ g/dL 이상 아동 비율 및 혈중 납 농도 분포(단위: %)

나이	라오로야	라콘셉시온
0-6	97	19
7-12	98	7
13-18	71	0
18이상	69	6
BLL(Blood Lead Level)	라오로야	라콘셉시온
10 μ g/dL이하	2.78	76.19
10-19 μ g/dL	16.67	19.05
20-44 μ g/dL	72.22	4.76
45-69 μ g/dL	8.33	0.00

(Laplante 2010, 33)

는 제련소 인근의 구라오로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2005년부터는 제련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아동까지 조사에 포함시킨 것으로 회사 측에 유리하게 자료를 가공한 것이었다(Laplante 2010, 35).

2005년 11월 AIDA(Asociación Interamericana para la Defensa del Ambiente: 미주환경보호협회)는 IACHR(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미주인권위원회)에 라오로야 시민, 특히 중세가 심한 65명의 건강보호를 위한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페루 국가를 제소하였다. AIDA가 미주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증언들은 라오로야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한 3세 남아는 혈중 납농도가 65.8 μ g/dL로 WHO 기준의 6배를 초과하였는데 복통과 설사, 계속적인 구토, 호흡기 문제, 혈뇨, 체중 미달, 공격적 태도 등이 보고되었다. 제련소 500m 거리에 거주하는 혈중 납 농도 25 μ g/dL의 다른 3세 여아는 소화문제로 구역질을 반복하였으나 라오로야를 떠나면 중세가 호전되었다. 라오로야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해 온 46세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 1997년 판막 두 개를 교체하였으며 1996년에는 쓸개에서 결석을 제거하고, 간에 염증과 몸 곳곳의 저림 증세, 계속적 기침과 만성 피로를 호소하였다. 라오로야 제련소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50세 남성은 작업 중 아연, 납, 구리, 황산 등에 노출되어 규폐증으로 더 이상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호흡이

어렵고 근 위축증과 호흡기, 복통, 피부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 시력도 악화되고 왼쪽 청력도 상실하였으나 의료보험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였으며 의료보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하였다(Laplante 2010, 38-39).

라오로야 제련소가 2009년 6월 도런페루의 조업 중지로 문을 닫은 이후 수년간의 대기 및 혈중 납 농도 조사는 제련소 가동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 가장 큰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2009년 11~12월 실시된 대기 오염 조사는 이상화황이 무려 99%나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으며 2012년의 대기 오염도 조사에 의하면 미세먼지(PM10)는 57%, 납과 비소가 99%, 카드뮴이 93% 감소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 실시된 6개월에서 9세까지의 아동과 임산부 803명을 조사한 결과 53%가 혈중 납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인 $10\mu\text{g}/\text{dL}$ 로 나타나 건강위험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IDH 2012, 14). 이는 주민의 납중독이 민영화로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누적된 오염 때문이라는 도런페루의 주장과 달리 회사 측의 공정개선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였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2. 지역주민과 초국가 환경 네트워크의 문제 제기

라오로야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지역의 풀뿌리조직과 환경단체, 수도 리마의 환경 NGO 그리고 옥스팜(Oxfam)같은 국제환경조직들이었다. 2001년 옥스팜의 중개로 이들 단체들이 회동하여 2002년 4월 MOSAO(Movimiento por la Salud de La Oroya)를 결성하였다.⁸⁾ 이들은 먼저 오염이 초래하는 건강 문제와 국가 및 회사의 책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

8) MOSAO 결성에 참가한 라오로야 지역사회조직으로는 Asociación de Delegados Ambientales, Comité de Defensa de La Oroya Antigua, Asamblea Popular de La Oroya, Comité de las Juntas Vecinales de La Oroya, Comité de Derechos Humanos de la Parroquia de La Oroya 등이 참여하였으며 국내외 환경단체로는 Labor, CooperAcción, Filomena Tomaira(이들 3개 조직이 Consorcio Unes 결성) 미국 장로교의 국제인권단체인 Joining Hands against Hunger 등이 있다. 그러나 외부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오해를 피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활동 보장을 위해 환경단체들은 MOSAO에서 떨어져 나와 기술 지원팀을 따로 조직하였다(Scurrah et al. 2008, 89).

적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특히 Oxfam America와 미국 장로교 인권단체인 “Joining Hands against Hunger”는 도런페루의 모회사인 미국의 도런(Doe Run 혹은 Doe Run Resources)이 운영하는 미주리 주 소재 허쿨레니엄(Herculaneum) 납 제련소의 피해 주민들과 연대활동을 주선하였다.⁹⁾ 2002년 10월에는 Saint Louis Post Dispatch가 라오로야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도런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으며 12월에는 세인트루이스의 TV 방송(KMOV)이 “납의 도시 라오로야(La Oroya, City of Lead)”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6개의 언론상을 수상하였으며 페루 의회에서도 방영되었다.

한편 같은 해인 2002년 10월 SPDA(Sociedad Peruana de Derecho Ambiental: 페루환경권리협회)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AIDA(Inter-Americ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Defense: 미주환경보호협회)은 페루정부가 라오로야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페루 법원에 제소하였다(Laplante 2010, 48). 2006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들 단체의 손을 들어주어 페루 정부가 판결 이후 30일 내에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다. 실제 집행은 미미하였지만 보건부는 회사와 함께 납중독이 심한 아동들에게 납중독 치료를 제공하고 40 μ g/dL 이상의 중독을 보이는 6세 이하 아동을 제련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수송하고 정기적 혈액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회사가 비용을 제공하고 회사 소속 의사가 처치를 담당하였으며 치료를 신청한 사람들 대부분은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라오로야 주민 특히 제련소에서 일하지 않는 일반 빈곤층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Fraser 2011, 35).

2005년 11월에는 AIDA가 미주인권위원회(IACHR: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라오로야 주민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와 함께, 특히 중독이 심한 65명에 대해서는 즉각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

9) 2001년 1월 미주리주 보건부에 따르면 Herculaneum 제련소의 오염 물질 배출로 6세 미만 아동의 76%가 연방규정을 초과하는 혈중 납 농도를 기록하였다(Scurrah et al. 2008, 89).

하였다. 미주인권위원회는 2007년 9월 주민들에 대한 병원 검사와 치료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현지 주민들에게 아무런 실제적 조치도 행하지 않았다. MOSAO 대표인 로사 아마로(Rosa Amaro)의 2012년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은 정부 측의 어떤 지원이나 관심을 실제로 받아보지 못하였다.¹⁰⁾

이같이 미국의 환경 인권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라오로야의 지역사회의 역량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MOSAO는 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조직할 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기술적 지원을 담당한 환경단체들은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였으나 이들도 지역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정책이나 실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Scurrah et al. 2008, 108). 지역풀뿌리 조직의 부족한 역량을 메워 준 것은 지역의 가톨릭교회와 미국 환경네트워크의 연대 활동, 그리고 이들이 주도한 언론을 통한 국제적 문제제기였다. 페루 의회와 정부 내의 일부 인사들, 그리고 전국 신문의 라오로야 사태 보도 등도 풀뿌리조직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2007년 10월 미국의 로펌(Schlichter, Bogard & Denton)이 137명의 라오로야 아동들을 대표하여 미주리 주에 도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Tucker 2012, 8). 이는 미주리 주에서는(미국의 다른 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주리 주 소재 회사의 불법행위가 미주리에서 결정된 경우 해당 불법행위에 대하여 외국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문제되는 주의 주민이 외국인 원고를 대신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장은 도련이 라오로야 제련소를 인수한 1997년 10월 24일부터 제련소의 독성물질 배출 책임이 회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모회사인 도련이 이미 미주리 주에서 납 중독으로 악명 높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았다. 도련은 계속해서 미주리 주의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이전하려 여러 차례 시도하였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이미 평판을 상실한 미주리

10) <http://www.cooperaccion.org.pe/noticias/10-noticias/316-poblacion-de-la-oroya-seguira-vigilante-rosa-amaro-del-movimiento-por-la-salud-de-la-oroya-mosao-respiramos-humo-negro-como-de-llanta-quemada>

보다 연방법원에서의 판결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점과, 또 한편으로는 라오로야 원고 아동들의 가족들이 라오로야를 떠나도록 위협 혹은 회유하여 소송을 방해하고 철회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¹¹⁾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2011년 6월 연방법원으로 이관되었는데 이는 2011년 1월 렌코가 페루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으로 인해 주 법원의 관할권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3. 회사와 국가의 대응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위협은 회사의 오염에 대한 무관심 정보 왜곡 그리고 국가의 감독 기능 방치가 결합된 결과였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회사 인수 당시 도론페루가 10년 내에 환경개선조치(PAMA)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이다. 회사는 가장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황산처리 공정을 수차례 연기하였을 뿐 아니라 라오로야의 오염이 자신의 책임임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기 오염도 및 주민 건강 조사 자체를 방해하였다. 1999년 Consorcio UNES의 연구는 회사 측의 비난으로 회사 측의 보복을 두려워한 주민들의 비협조로 충분한 샘플을 얻기가 어려웠다. 납 중독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회사 측은 방법론적 오류를 주장하면서 연구 결과를 폄하하였다. 회사 측이 참여한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이자 이번에는 주민들의 생활태도와 위생 의식 결여를 문제 삼아 납 중독을 주민들의 책임으로 몰아갔다(Scurrah et al. 2008, 98).

회사는 또한 2001년 주민들이 결성한 MOSAO에 대해 MOSAO는 일개 NGO에 불과하며 실제 목적은 회사 문을 닫게 하려는 것이고 갈등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회사와 회사를 지지하는 노조, 시 정부 측은 미국

11) 라오로야의 피해 아동들을 대표하는 미주리 로펌에 의하면 2010년 말 도론페루 원고 아동들을 부당하게 접촉하고 후원자들을 위협하였다. 로펌의 한 변호사에 의하면 “도론페루는 다른 사람들이 아동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려 했다.” 이 변호사의 페루 현지 사무실 유리가 파손되었으며 아동들을 후원한 페루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도 살해 위협이 있었다(Tucker 2012, 10).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조사를 주선한 가톨릭교회도 비난하였다. 당시 라오로야 시장은 주민들이 더 이상 조사를 원하지 않으며 PAMA의 문제에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세인트루이스 대학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회사 측 주민들이 연구 참여자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Scurrah et al. 2008, 98).

회사 측의 주민 건강 조사에 대한 태도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은 주민과 NGO의 환경오염 및 건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일자리와 환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프레임을 강요하여 주민들에게 전파한 것이었다. 라오로야 주민들은 교육 접근성이 낮고 회사의 비밀주의와 정보 왜곡으로 주민들은 회사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제련소 폐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으로 주민들 사이에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MOSAO 활동가들은 위협 속에서 고립된 활동을 해야 하였으며 때문에 활동의 동력을 좀처럼 확보하지 못하였다(Fraser 2011).

여기에는 라오로야의 제련소 종업원들의 일반 주민에 대한 미묘한 차별의식도 함께 작용하였다. 주로 외지 출신인 제련소 종업원들의 소득은 일반 주민들보다 높았으며 대부분 제련소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여 오염의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 종업원 가족들은 납중독은 가난으로 인한 열악한 거주환경과 영양부족이라는 회사의 선전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득이 낮은 일반주민들과 자신들을 구분하여 생각하였다. 반면 제련소 인근의 구라오로야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 토착 주민들은 주로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행상이나 식당, 세탁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소득도 더 낮았으며 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건강상태도 열악하였다(Valencia 2011).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은 노조와 제련소 종업원들 스스로 자신들은 안전하며 환경오염은 과장된 것이라는 허위의식을 갖게끔 하였다.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차별화가 라오로야 전체의 오염과 건강 문제를 보는 주민들의 독자적 시각 형성을 방해하고 거꾸로 회사의 정보 왜곡과 주민 분열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된 것이다.

2006-2007년 연속 라오로야를 세계10대 오염 지역의 하나로 선정한 환경 단체인 블랙스미스는 2008년 5월 라오로야를 방문 조사하여 오염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회사 측이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Wilson 2008). 도런페루는 이를 널리 선전하였으며 이 보고서를 이용하여 페루 에너지광산부의 벌금 부과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블랙스미스가 라오로야에 조사차 방문하였을 때만 오염수치가 현저히 낮았다. 예를 들면 4-6월의 이산화황의 평균배출량은 $5,000\mu\text{g}/\text{m}^3$ 이었으나 블랙스미스가 조사차 방문한 날은 거의 제로였다. 회사 측은 이 보고서가 회사 측의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그 보고서의 저자가 도런페루가 회원으로 있는 International Lead Management Center¹²⁾에서 일한다는 것, 또 블랙스미스가 5월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보고서를 다른 저자에 의해 다시 발간하였다는 것도 밝히지 않았다(Laplante 2010, 57-58).

정부는 라오로야 주민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였다.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보건부를 통한 조사와 회사의 자금을 활용하여 회사와 공동으로 전개한 초보적 구호조치, 그리고 청소 캠페인 등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외 환경 네트워크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나아가 미주인권위원회에 페루 정부의 긴급 구호조치를 요청한 것 자체가 정부의 무능 혹은 의지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라오로야의 시장들은 회사 편에서 수많은 파업, 행진, 시위, 청원, 항의를 주도하였다. 라오로야 경우에 경제권력(회사)과 정치권력(지방정부)의 결합은 억압적 환경을 만들어내었으며 불신을 일으키고 강화하였다(Scurrah et al. 2008, 113).

12) International Lead Management Center는 Doe Run을 포함한 8개 주요 납 생산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다. <http://www.lead.org.au/lanv7n1/L71-9.html>

IV. 도런페루의 약탈적 기업전략

1. 모기업 렌코그룹의 기업 행태

도런페루는 미국 도런의 자회사이며 도런은 다시 미국의 부호 아이라 레너트의 가족 소유 비상장기업인 렌코그룹에 속해있다. 레너트 소유 기업의 자산은 2013년 11월 현재 5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수년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비싼 저택을 소유했던 거부이다.¹³⁾

레너트는 정크본드를 발행하여 경영난에 빠진 회사를 매입하여 경기가 좋아질 때 되파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그의 가장 큰 성공은 파산한 험비(Humvee)를 생산하는 군용차량제조사인 AM General을 1억 3,300만 달러에 사들여 2004년 론 퍼렐만(Ron Perelman)에게 지분의 70%를 9억 3,500만 달러에 되판 것이었다(Elstein 2011). 그가 2억 5천 달러에 매입한 라오로야 제련소도 현재 시가로 약 10억 달러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 파산으로 페루 정부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았더라면 레너트는 다시 거액을 손에 질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도런페루의 페루에서의 약탈적 기업 전략은 사실 미국에서의 그의 부의 축적방식을 그대로 페루에서 되풀이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 약탈적 축적이란 적어도 세 가지 의미에서, 즉 자회사로부터의 과도한 자금 이전, 파산을 통한 채무의 감면과 투자자 피해 유발, 그리고 환경오염과 이와 관련된 주민 피해를 대가로 한 부의 축적을 기본 전략으로 하는 축적 행태를 말한다. 그는 먼저 정크본드로 매입한 자회사 수입에서 거금을 자신의 지주회사로 배당하는 일종의 자회사 돈 빼내기 수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레너트는 오하이오 주 소재 워렌철강회사를 1억 4천만 달러에 매입한 후 회사이름을 WCI로 바꾸고

13) 뉴욕 록펠러 센터에 있는 Renco Group은 페루의 라오로야 제련소외에도 미국 유일의 마그네슘 광산, 미국 최대의 납 제련소, Ohio, Maryland and West Virginia 등지에 제철소를 소유하고 있다. 렌코는 또한 자동차부품회사와 군용차량 제조사, 보석 소매상을 소유하고 있다. 약 2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렌코는 2010년 약 6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Elstein 2011).

1996년 3억 달러의 정크본드를 발행하고 이 중 1억 800만 달러를 곧바로 렌코에 배당액으로 이전하였다(Wikipedia “Ira Rennert”(2014.05.28), http://en.wikipedia.org/wiki/Ira_Rennert). 같은 해인 1996년 렌코는 Magnesium Corp.의 지주회사로 Renco Metals Inc.을 설립하고 1억5천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였는데 WCI와 마찬가지로 9,800만 달러를 배당액으로 가져갔다. 1995년 이후 렌코의 자회사들은 정크 본드를 발행하여 회사를 사들인 후 11억 달러의 대출을 받아 29%인 3억 2,200만 달러를 렌코그룹에 배당금 형식으로 이전하였다(Tucker 2012, 4).

두 번째 수법은 이 과정에서 해당 자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파산신청(Chapter 11)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 변제 압력을 완화하거나 구조조정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연방정부는 2001년의 소송에서 레너트가 자회사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지주회사로 빼내 회사를 파산상태로 만들어 채권자들의 돈을 사취하는 행동 패턴을 보여 왔다고 밝히고 있다(Elstein 2011). WCI Steel도 렌코가 발행한 3억 달러의 정크 본드를 제때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었으며 투자자들은 렌코가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이전하였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Reutter 2011).

마지막으로 이런 파산의 상당수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벌금 지불이나 환경보존 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적 비용 지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레너트는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를 통해 주변 공동체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여왔다. 레너트의 회사들은 환경오염으로 악명이 높았다. 1998년 미국환경청(EPA)은 렌코를 미국의 10대 오염원으로 지정하였는데, 유타 주에서의 US Magnesium의 독성물질이 Great Salt Lake를 오염시킨 것이 주요 이유였다.¹⁴⁾

14) US Magnesium은 렌코가 1989년 매입하였는데 이때 오염물질 방출이 1년에 11만9천 톤으로 최고였다가 1998년까지 오염물질 배출은 50%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까지는 97% 감소되었다.(Wikipedia “Ira Rennert”(2014.05.28), http://en.wikipedia.org/wiki/Ira_Rennert). 페루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미국 환경당국의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EPA는 2008년 9월에도 US Magnesium을 우선적 환경피해 복구 대상지역(NPL: National Priorities List, 일명 Superfund site)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회사는 2014년에도 여전히 NPL에 올라있다(Wikipedia “Ira Rennert”).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근처의 Herculaneum의 납 제련소도 라오로야와 마찬가지로 독성물질을 배출하여 2002년의 연구에 의하면 제련소 0.25마일 이내 거주하는 아동들의 절반이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 보다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EPA의 규제 방침에 따라 도련은 피해 복구를 위해 10년간 제련소 인근 160개의 주택을 매입해야 했다(Elstein 2011). 이곳의 제련소는 2013년 폐쇄되었으며 렌코는 연방오염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700만 달러의 벌금과 6,500만 달러의 환경 복구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레너트의 파산신청은 환경오염 복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레너트가 자신의 환경의무 이행 책임(environmental liabilities)을 회피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미국 내 환경운동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Romero 2009; Bennett 2012). 2012년 6월 25일자 뉴욕포스트(New York Post) 보도에 의하면 레너트의 MagCorp(현재의 US Magnesium)는 크롬, PCBs(폴리염화 바이페닐)과 기타 독성물질을 Great Salt Lake에 투기한 혐의로 2001년 EPA로부터 9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후 파산을 신청하였다. 동 기사는 또 2012년 5월 렌코의 회사인 메릴랜드 주 스페로우스 포인트(Sparrows Point)에 위치한 RG Steel의 파산 신청은 6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환경복구이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파산 신청으로 스페로우스 포인트 공장의 환경 정화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정도 전하고 있다(Bennett 2012).

2. 도련페루의 PAMA 기한 연장

도련페루의 라오로야 인수 조건 중의 하나는 제련소의 환경오염을 기준치 내로 낮추기 위한 환경 정화 프로젝트인 PAMA 프로그램을 10년 내에 이행하는 것이었다. PAMA는 <표 2>에서 보듯 모두 9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도런페루는 1997년 라오로야 제련소를 인수한 이래 여러 번에 걸쳐서 PAMA 계획 변경을 계속 요청하였다. 크고 작은 도런페루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어 1997년 10월 이후 2009년 9월 25일까지 모두 7 차례 수정되었는데 이 중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말의 기한 연장 요구였다. 도런페루는 2006년까지 완료되어야 할 PAMA 프로그램을 2011년까지 5년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계획변경과 함께 오로야 금속단지 PAMA의 총투자액은 9개 프로젝트에 1억 7,395만 달러로 약간 늘어났으나 전체 PAMA 예산의 62%를 점하는 구리 공정의 황산 공장의 건설은 PAMA 이행의 마지막 단계로 다시 미루어졌다.

작은 변경신청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를 프로그램 이행의 마지막 단계로 다시 미루자 에너지광산부는 도런페루의 PAMA 의무 이행 의지에 의심을 가지고 회사 측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행 완료를 3년 남긴 2003년 말까지 도런페루의 PAMA 이행 정도는 23%에 불과하였다(De Echave 2013, 16). 이행 완료 기한이 3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런페루의 PAMA 이행도는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도런페루는 PAMA

〈표 2〉 2003년 PAMA 이행 정도

PAMA 프로그램		1997-2005 투자 계획(백만 달러)	1997-2003 집행 (백만 달러)	진행정도 (%)
1	황산공장	107.5	8.0	7.4
2	산업 폐수 처리공장	33.7	11.9	35.0
3	폐기물 적치장	11.7	2.3	20.0
4	구리/납 찌꺼기 처리	9.6	9.7	101.0
5	구리 정제수 처리공장	5.5	2.4	44.0
6	Vado의 비소 삼산화물 퇴적	2.3	2.4	101.0
7	Huanchan 아철산업 저장소 공기정화	1.8	1.7	94.0
8	Huanchan 구리/납 찌꺼기(slag) 저장 소 환경 개선	0.8	1.1	138.0
9	감시소 및 항공사진	0.6	0.6	93.0
합계		173.9	40.3	23.0

(De Echave 2013, 16)

기한 연장 신청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들었으나 1997-2004년까지 도런페루는 미국 모회사에 9,5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이는 PAMA 비용의 88%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Laplante 2010, 47).

정부가 기한 연장을 거부하자 회사는 지방정부와 노조의 힘을 빌려 PAMA 기한 연장을 위한 시위를 조직하였다. 2004년 3월 야울리 뽀로빈시아와 라오로야 시는 회사의 주장을 지지하였으며 노조도 여기에 동참하였다. 시장과 노조는 파업과 시위를 선언하면서 회사의 PAMA 기한 연기를 요구하였다. 12월에는 48시간 파업과 간선도로의 봉쇄로 이어지면서 폭력사태로 발전하였다. 사태가 복잡해지자 에너지광산부는 2004년 12월 29일 DS 046(Decreto Supremo 046)¹⁵⁾를 통해 회사가 2005년 말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령은 순전히 도런페루만을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금속광산 부문에서 환경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못한 유일한 회사가 바로 도런페루였기 때문이다(De Echave 2013, 17).

한편 2005년 1월 Maria Chappuis 에너지광산부 총괄실장은 DS 046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후 사임하였다. 1년 후 그녀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런페루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에너지광산부 환경담당 실장에게 가서 기한을 바꾸곤 하였다. 여기에는 무언가 모종의 거래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같이 해서 회사는 벌금을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미루어 놓았다”고 회사를 비난하였다(El Comercio(2006.3.4.) Scurrah et al. 2008, 96 재인용). 이어 다른 신문은 며칠 후 그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녀의 발언은 에너지광산부를 뒤흔들었다. 그녀가 언급한 사람은 José Morgrovejo 인데 그는 에너지광산부 환경실장을 지내고 지금은 도런에 몸담고 있다. César Polo는 센트로민페루의 재정책임자였는데 후에 에너지광산부 차관을 지내고 COPRI(민영화위원회)와 PROINVERSIÓN(민간투자촉진청)에서 도런 대표로 일하였다. César Bonelli는 라오로야에서 센트로민페루

15) Decreto supremo는 대통령이 서명하는 대통령령과 장관이 서명하는 부령을 통칭하며 이 법은 에너지장관부령이다.

의 대표였으며 후에 에너지광산부의 환경실장이 되었다. 에너지광산부는 도
런에서 심판관이자 선수였다.(La República(2006.3.7.) Scurrah et al. 2008,
96 재인용)

한편 DS 046에 근거하여 기한 연장 기회를 다시 얻은 도르페루는 2005년
12월 20일 PAMA 황산처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 완료 기한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 이후 6개월간 격렬한 찬반토론과 경쟁적
로비와 세과시를 위한 거리 시위 등이 이어졌다. 언론에서도 찬반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El Comercio, La República, Perú 21, Caretas 등이 MOSAO와 환경
NGO들의 주장을 소개하였으며 Correo와 주간지 Minas y Petroleo는 회사에
유리하게 보도하였다.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철학적 공정성을 보여
주기 위해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았으며 2006년 2월 17일 에너지광산부는 90
가지의 의견서(observaciones)를 포함한 훈령(acto directoral)을 발표하였다.
에너지광산부는 회사가 의견서를 검토하는데 30일을 주고 동시에 PAMA 이
행을 위해 3년 내의 범위에서 이행 스케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도르페
루는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PAMA 프로그램 이
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와의 거래에 제약을 받았으며 공청회에서의
약속 이행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엄격한 조치는 정부가 받은
사회적 압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라오로야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2006년 5월 29
일 에너지광산부는 부처 시행령(257-2006-MEM/DM)을 통해 2009년 10월
31일까지 PAMA 이행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에너지광산부는 오염 억제에 필
요한 투자를 하는데 3년의 기간을 주고 황산 처리 공장 3개 건설, 굴뚝 연기 감
소, 물과 대기의 환경기준치 달성, 토질의 감시, 소년과 임산부의 건강 관리, 가
옥과 거리 주요 지역에 대한 청소 등의 이행 의무를 병과하였다. 또한 회사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보증서, 반기별 감사, 매월 투자 보고, 투자액
100% 신탁조치 등)가 포함되었으며 시행령1조는 이 조치가 예외적이며 기한
은 “연장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다(De Echave 2013, 17).

3. 도런페루의 파산 전략

2008년 말 도런페루는 상품가격 하락과 높은 부채 부담으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다. 도런페루는 세계 경제위기와 구리가격 하락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¹⁶⁾ 이를 이유로 PAMA 기한 연장을 다시 요청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도런페루가 페루 광산부문에서 세계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 파산을 위협한 유일한 회사였다는 점이다. 도런페루는 2009년 초 제련에 필요한 정광구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연 및 납 공정 조업을 중단하였다.¹⁷⁾ 정부는 도런페루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광산회사들의 신용 지원을 주선하여 4월에 합의 이끌어냈는데, 그 내용은 도런페루에 정광(concentrate)을 공급하는 페루광산회사들이 도런페루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모회사인 렌코는 도런페루의 재정 부족분인 1억 5,600만 달러를 제공하여 PAMA 계획을 완료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페루정부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렌코는 6월이 다 될 때까지 주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결국 6월 3일 도런페루는 임금과 정광 대금 지불 불능상태에 빠져 조업중단을 선언하였다. 2009년 8월 도런페루는 파산을 선언하였으며 페루 정부는 도런페루가 곧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페루 정부와 정광 공급자들이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런페루는 조업 중단과 파산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부터 2008년 3분기까지 도런페루의 순이익은 4억 달러, 순영업 현금유입액은 5억8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렌코는 그 사이 미국 미주리 주 허큘레니엄 공장에 미국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신기술에 투자하였으며 제련소 조업을 중단한 2009년 6월에는 스웨덴 자동차 회사인 샵(Saab)을 매입할 의사를 보였다(Romero 2009). 도런페루의 이런 행태는 당시 라오로야 주민들의

16) 2008년 구리 아연 납 가격이 적어도 49%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도런페루는 1억 2,4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7) 도런페루의 재정위기는 BNP Paribas, Banco de Crédito del Perú, Standard Bank 등이 3월에 7,500만 달러의 신용 공여를 중단하면서 발생하였다. <http://www.ipsnews.net/2009/04/peru-bailout-of-mining-co-eclipses-environmental-disaster/>

〈표 3〉 도런페루의 경영 실적 2004~2008(2008년은 3분기까지)(미화 100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1-9월)	2005-2008 합계
1. 순매출	623.0	1,181.3	1,471.2	1,172.6	
2. 감가상각 및 부채 상환	19.8	28.2	41.7	18.6	108.3
3. 영업이익	28.6	96.6	145.7	88.1	
4. 순이익	47.9	120.2	183.5	48.3	399.9
5. 순영업 현금유입액(2+4)	67.7	148.3	225.3	67.0	508.3

(Doe Run Peru, Estados Financieros auditados al III Trimestre del 2008(La República (2009.3.28.) De Echave 2013, 17 재인용)

분노를 야기하였다. 도런페루는 충분한 이익을 올리고 있었으면서도 PAMA 프로그램 완수에 필요한 8천만 달러를 투자하지 않았으며 그 이익을 다른 곳에 사용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렌코의 기업 전략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라오로야 공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성에는 무관심하다는 것,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는 대로 거액의 배당금을 모회사로 이전한 후 거액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파산으로 추가 비용 지출을 회피하는 모기업 렌코의 전형적인 약탈적 기업전략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도런페루가 조업을 중단하여 지역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페루정부의 PAMA 이행 조건에 불응하자 페루 정부는 도런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9년 7월 들어 페루 정부와 SNMPE(페루석유광산에너지협회)는 도런페루에게 PAMA를 이행할 의도가 없으면 페루를 떠나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SNMPE는 한 발 더 나아가 행동규범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도런페루의 회원자격을 정지시켰다.¹⁸⁾

도런페루는 다시 PAMA 기한을 연장해주면 3,100만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운영 자금으로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정부는 회사가 적어도 1억 달러를 투자할 것과, 채권자들과 합의에 도달하고 PAMA 이행 보증금으로 주식을 모두 국가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회사가 정부와 조업 재개 조건을 놓고 줄다

18) <http://www.minesandcommunities.org/article.php?a=9333>

리기를 하는 동안 라오로야에서는 정부의 회사 제안 거부에 불만을 품은 회사 측의 사주로 종업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하여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하였다. 법무장관 Aurelio Pastor는 도런페루가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경찰관의 죽음을 사주하고 방조한 혐의로 도런페루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시위 발생 며칠 후인 2009년 9월 25일 일자리 보전과 환경오염 복구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85:1로 다시 PAMA 이행 기간을 연장해주었다. 통과된 법령 29410은 이산화황 공장 자금조달과 완성을 위해 자금조달에 10개월, 프로젝트 완성과 조업개시에 20개월 총 30개월 연장을 허용하였다. 법안의 문안은 2012년 3월까지의 30개월 기한은 절대적이고 협상 불가능한 최대 기한이라고 못 박았다(De Echave 2013, 18).

그러나 도런페루는 자금조달을 위해 허용된 10개월이 만료되는 2010년 7월까지 재가동을 위한 재정 보증 만료일을 지키지 못하였다. 지키지 못하였다 기보다는 정부의 제안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2010년 1월 렌코는 2억5천만 달러에 매입한 라오로야 제련소를 4억 1,500만 달러에 스위스의 국제상품거래업체이자 광산업체인 Glencore International AG와 네덜란드의 국제상품거래업체인 Trafigura Beheer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도런페루가 40개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할 부채 1억 달러를 상환하고도 6천만 달러를 남길 수 있는 거래였다.

사실 도런페루의 파산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유주인 레너트의 전형적인 약탈적 축적 수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레너트는 MagCorp의 환경오염으로 2001년 EPA로부터 9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후 파산을 신청하였으며 2012년 5월에도 6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환경복구이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RG Steel의 파산을 신청한 것은 전술한 바 있다(Bennett 2012). 미국에서 Chapter 11에 의거한 파산은 회사의 경영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부담을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회생시킬 기회를 다시 얻는 것을 의미한다. 렌코는 페루에서도 파산 신청 이후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았다. 렌코의 자회사인 도런케이만(Doe Run Cayman)은 채권자회의에서 채권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렌코는 파산 이후에도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다.¹⁹⁾ 도런페루의 이익을 모회사로 배당한 후 이를 다시 도런페루의 부채로 전환시켜 놓은 것은 차후의 파산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도런페루의 파산 이후 페루 정부는 도런페루의 환경개선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채권으로 신청하였으나 처음에는 파산관리 기구인 INDECOPI에게 거부당하였다. 그 후 재신청을 통해 이 금액을 부채로 인정받았으며 페루 정부가 인정받은 채권액은 전체 부채의 36%였다. 만약 페루 정부의 요구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면 렌코는 도런페루의 최대 채권자로서 파산 이후에도 도런페루의 관리권을 장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렌코의 의사대로 투자비용을 페루 정부가 요구하는 1억 달러가 아니라 3천만 달러 선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⁰⁾

흥미로운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 가르시아 대통령도 도런페루에 대해서는 인내의 한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는 2010년 6월 중순 도런페루 종업원들이 총파업을 벌이고 라오로야 주민들도 이에 합세하자 회사가 더 많은 시간을 달라는 것은 공갈이며 “우리는 관대하게 대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일갈하였다. 한 달 후 가르시아는 도런페루의 조업승인을 취소하였다.²¹⁾

4. 도런페루의 페루 국가 국제중재심판소 제소와 전망

페루 의회까지 나서서 도런페루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지 10개월이 다 된

19) Kosich, Dorothy, 2012. “Peru’s La Oroya complex to have new owner in August-Doe Run Peru Administrator”, Nov. 14, Mineweb. <http://www.mineweb.com/mineweb/content/en/mineweb-mining-finance-investment-old?oid=162007&csn=Detail>.

20) 채권단의 결정은 투표권의 2/3의 지지를 요건으로 하였다.

21) 조업승인 취소는 회사 자체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가 조업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페루정부에 의하면 도런페루가 채권단의 요구에 응한다면 의회가 허용한 2단계 20개월의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La República(2010.8.3.) <http://www.minesandcommunities.org/article.php?a=10290>).

2010년 6월 도런페루는 리마의 모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정부가 민영화 당시 맺은 계약을 준수하고 자신들이 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건설적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하였다(Mariluz 2010). 도런페루는 환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모면하고 오히려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일종의 적반하장 전략으로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도런페루는 라오로야 납중독 피해 주민들(아동들)의 이름으로 미주리 주에 제기된 모두 11건의 법률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페루 정부가 최종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다. 도런페루는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센트로민페루와 도런페루사이의 인수 계약에 센트로민페루가 제련소의 환경 훼손에 대해 책임진다는 조항을 들었다. 인수계약(Decreto Supremo #042-97-PCM)에서 페루정부는 센트로민의 약속, 보장, 선언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라오로야의 환경보호 운동을 지원 해 온 리마 소재 환경 NGO인 CooperAcción에 의하면 센트로민의 책임은 1997년까지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며 그 이후에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는 도런페루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Gómez 2010).

2010년 12월 29일 도런페루는 국제분쟁 중재기구인 UNCITRAL에 페루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소송 의향서를 제출하였다.²²⁾ 도런페루는 2011년 1월 5일 리마 신문에 낸 광고에서 회사가 페루 정부로부터 불공정 대우를 받았으며 투자자로서 조약에 명시된 보호와 안전을 제공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제중재재판을 청구하였으며, 국제 위기와 재정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PAMA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De Echave 2013, 39). 2011년 4월 7일 렌코와 도런은 미-페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8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페루 국가에 대해 중재절차를 개시하였다. 이는 페루에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처음 이용되는 사례가 되었다.

22)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 무역법위원회)를 지칭하며 중재과정은 또 다른 국제중재기구인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보다 투명하지 못하다는 평판이 있다.

회사가 국제중재심판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도런 페루가 투자자 제소를 통해 당시 미주리 법정에서 부과될 벌금을 페루 정부에 전가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2011년 미주리 주 16명의 아동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주리 법원은 회사가 이들 아동들에게 3억 5,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 하였다.²³⁾ 페루 라오로야 아동에 대한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런페루는 국제중재재판을 이용하여 페루 유권자가 도런페루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는 2009년부터 발효된 미국-페루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보 상금을 받아 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점, 마지막으로 투자자-국가소송을 근거로 미주리 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관할권이 이동하는 점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납 증독에 민감한 미주리 주법원보다 연방법원에서 좀 더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렌코는 국제중재심판소에 페루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1) PAMA 집행과정에서 페루 당국이 추가적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며 이는 정당하고 공평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페루자유무역협정 위반이다. 2) 페루 당국이 라오로야에서의 토질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영기업(센프로민페루)에 대해서보다 자신들에게 요구가 많 았고 더욱 경직된 태도로 취함으로써, 자신들을 차별대우 하였다. 3) 채권자들 중에 페루 정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 몰수 위험이 있다. 4) 페루 정부 가 오로야 제련단지의 조업에 반대하는 어떤 비난이나 비난이 초래할(부정적) 영향²⁴⁾에 대해서도 책임질 의무가 있다(De Echave 2013). 여기에서 이들 문제에 대해 자세히 논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미-페자유무역협정이 도런페루 의 약탈적 기업행태를 방어하는 논리와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으며 페루정부

23) <http://www.aida-americas.org/en/release/la-oroya-clean-up-should-not-be-chilled-by-investment-arbitration>

24) 미국 법원에 제기된 라오로야 아동들의 소송과 소송 결과 부과될 가능성이 큰 거액의 보상금을 지칭한다.

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았거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도런페루가 이처럼 적반하장식의 전략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페루 신자유주의 정책의 최종적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도런의 책임전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페루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은 자승자박을 자초한 셈이다.

현재 렌코와 페루 국가의 국제중재재판은 2011년 8월 렌코가 중재청구 의향서 수정본을 제출하고 한 달 뒤 페루 정부의 간단한 입장 표명이 있었으며 2013년 8월에는 중재재판소의 심판소송 절차매뉴얼이 양측에 교부되었다. 2014년 2월 렌코 측의 장문의 재판 청구 이유서가 중재재판소에 제출된 상태이다. 국제중재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렌코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렌코의 주장이 전반적으로 무리수이며 반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²⁵⁾ 그러나 페루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자원개발 분야에서 발생한 투자자 국가소송은 압도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이 허용하는 투자자-국가소송에서 미국 기업에 지불한 금액은 지금까지 약 6억 7,500만 달러에 달하며 이중 70%가 석유·광산·에너지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지불한 것이었다. 정부가 투자자에게 보상금으로 지불한 소송건수의 75%가 자원부문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조적으로 국제중재심판소가 투자 수용국의 손을 들어준 사례의 80%는 석유·광산·에너지부문과 무관한 사례들이었다(Tucker 2012, 1). 또한 지금까지의 국제중재심판소의 판결 경향을 보면 투자수용국 정부의 정책보다는 투자 기업의 이익 창출 기회 보장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렌코 주장의 합리성과는 별도로 페루 정부가 낙관만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25) 회사 측 주장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반박에 대해서는 De Echave(2013)와 Tucker (2012) 참조.

V. 결론

페루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지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세력의 집권 경험과는 달리 칠레와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Silva 2009). 광물 생산액 기준으로 세계 7위, 남미 2위의 광산국가인 페루는 2000년대 중반의 국제상품가격 상승에 따라 2005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연평균 2.5%대의 물가 안정과 소득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59%에서 26%로 감소하였다. 페루의 이 같은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이에 따른 광물 부문 투자 확대에 기인한 바 크다(PWC 2013). 페루 경제가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 경제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채굴산업(석유가스 광물)의 투자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경제 다변화에 실패할 경우 “자원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더구나 이러한 성장은 주로 채굴부문에서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폭력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페루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²⁶⁾ 따라서 라오로야 사태에서 보듯이 환경과 인근 주민에 대해 약탈적 행태를 보이는 다수의 광산 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다 강력한 규제가 없이는 페루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Bebbington 2010).

26) 사회갈등은 2008년에서 2012년의 5년간 3배나 증가하였으며 2004년 2014년 5월 현재 212건의 사회적 갈등의 대부분(64%)은 사회환경적 갈등(135건/212건)이며 이중 117건이 광물(100건) 및 석유가스 개발(17건)을 둘러싼 회사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다. 이런 사회환경적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도 광산개발 허가지역의 증가에 따라 2004년 4개주에서만 발생하였던 것이 2010년에는 24개 주, 즉 페루 거의 전역으로 확대되었다(Defensoria del Pueblo 2012, 37). 더구나 이런 갈등은 주민들의 시위와 반대운동으로 이어져 다수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005년에서 2011년 9월까지 집단시위가 총 2,196건이나 발생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사망자는 195명(주민 165명, 경찰 30명), 부상자는 2,312명(주민 1,799명, 경찰 513명)을 기록하고 있다(Defensoria del Pueblo 2012, 41-53).

도런페루의 페루에서의 약탈적 기업 전략(회사 측의 오염 방지와 환경 개선 의무 회피, 오염 문제 해결과 치료를 요구하는 주민에 대한 위협과 공갈, 파산을 통한 추가적 환경부담 회피, 환경의무 불이행 책임을 페루 국가에 전가하는 국제중재심판소 제소 등)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이익을 준다는 신자유주의의 기본적 이론적 전제를 구체적 행위자인 기업 특히 외국기업이 스스로 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페루 채굴부문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정당성에 가장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⁷⁾ 즉 라오로야 사태는 수단의 윤리성을 가리지 않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부를 추구하는 기업의 이윤 추구적 합리성이 최소한도의 국민 보호기능을 전제로 하는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적 합리성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오로야 사태는 나아가 약탈적 기업윤리를 가진 기업을 통제할 메커니즘을 사실상 모두 제거당한 제3세계 자원부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거의 무제한적인 투자 및 이익실현 기회를 보장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의 길은 수많은 함정과 희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일탈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철학과 정책논리의 내부적 취약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페루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라오로야 사태는 페루 신자유주의의 함정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처방을 시사하고 있다. 하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여론을 형성하여 결국 페루 정부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런페루에 대해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하도록 한 국내의 환경 및 인권 네트워크의 역할을 주목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포기한 페루 국가에 대해 취약한 지역사회와 주민 조직을 대신하여 주민 건강을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하도록 국내의 사법기구에

27) 신자유주의의 기본적 이론과 가정에 대해서는 Harvey(2005),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통치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Hilgers(2011), Larner(2000) 참조.

문제를 제기하고 도런페루의 모기업인 도런이 소재한 미국 미주리 주에 라오로야의 납 중독 아동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도 바로 페루 환경 NGO들과 초국가 환경 및 인권 네트워크(Oxfam America, Aida, 가톨릭교회 등)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페루 국가의 대응이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국가의 변용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페루 정부의 거의 변함없는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한 연장과 조업 중단 위협 및 파산 등의 약탈적 행태에 대해서는 페루 정부도 결국은 도런페루와 대립적 입장에서 강경한 대응책을 들고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페루 국가는 기본적으로 도런페루를 두둔하는 친기업적 입장을 보였다. 두 차례나 법을 제정하여 PAMA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 도런페루에 특허를 제공하면서 라오로야 주민의 심각한 건강피해 특히 납중독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친기업적(혹은 친자본적) 존재와 역할의 편향성이 라오로야에서도 극명하게 전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에서 라오로야를 둘러싼 갈등의 경과를 보면 초기의 정부의 투자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지역 주민조직과 교회 등의 종교단체, NGO의 실태 고발 운동을 통해 주민들의 납 중독 오염실태가 국제적 관심을 받으면서 정부의 태도도 점차 엄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런페루의 사례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에 변화를 주는 상황이 전개되면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와는 별도로 외국기업과 갈등관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 국가가 값비싼 비용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적어도 일부는 항상 수정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국가가 신자유주의 철학으로 무장한 일관성과 응집력이 높은 단일 조직이라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여러 기구들의 집합체(polymorphous institutions)(Weiss 2010)라는 관찰을 수용한다면, 국가 기구들 간의 위계질서나 국가 기구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정치세력에 따라 신자유주의 국가의 행태가 인권 및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은 국가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관료 및 정치인, 시민사회의 의식 전환과 주민들의 저항 운동, NGO와 사회운동세력의 꾸준한 대안 모색이 장기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전개과정 자체가 여러 이해관계 세력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의 결과였다면(Peck et al. 2009, 104), 라오로야 사태의 전말 역시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과 환경 및 인권 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페루 신자유주의 국가가 중국적으로는 도런페루와 대립 관계를 선택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힘이 어느 정도 발휘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룬 라오로야 이야기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내부적 작동 메커니즘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강고한 신자유주의 국가체제라 하더라도 사회적 국제적 압력을 통해 상당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은 향후 신자유주의의 방향 수정이나 대안 모색에서 의미 있는 함축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maro, Rosa(2012), *Testimony to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frica, Global Health and Human Rights, July 19. at U.S. Congress. <http://archives.republicans.foreignaffairs.house.gov/112/HHRG-112-FA16-WState-AmaroR-20120719.pdf>(검색일 2014.4.17).
- Bamat, Tom, Aaron Chassy, and Rees Warne(eds.)(2011), *Extractives and Equity: An introductory overview and case studies from Peru, ANGOLA and Nigeria*, CRS(Catholic Relief Services), Baltimore, MD.
- Bathon, Michael(2013), “RG Steel Creditors Ask Ability to Sue Billionaire Rennert”, Jan. 19. <http://www.bloomberg.com/news/2013-01-18/rg-steel-creditors-ask-ability-to-sue-billionaire-rennert.html>(검색일 2014.4.20).
- Bebbington, Anthony(2010), “Extractive Industries and Stunted States: Conflict, Responsibility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Andes”, In Raman, R.(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iscourses, Practices and Perspectives*. Palgrave MacMillan, London, pp. 97-115.
- Bennett, Chuck(2012), “Furor at steel tycoon Rennert’s bankruptcy ‘ploy’”, New York

- Post, June 25. <http://nypost.com/2012/06/25/furor-at-steel-tycoon-rennerts-bankruptcy-plot/>(검색일 2014.4.20).
- Brenner, N., Peck, J. & Theodore, N.(2010), “After Neoliberalization?”, *Globalizations*, September, 7(3), pp. 327-345.
- Businessweek(2003), “Ira Rennert’s House of Debt”, February 16. <http://www.businessweek.com/stories/2003-02-16/ira-rennerts-house-of-debt>(검색일 2014.4.20).
- Cederstav, Anna K. and Alberto Barandiarán G.(2002), *La Oroya Cannot Wait*, Interameric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Defense(AIDA), Peruvian Society for Environmental Law(SPDA), Lima, Perú.
- Christian Aid(2005), *Unearthing the Truth: Mining in Peru*, A Christian Aid report, February.
- De Echave, José, and Emma Gómez(2013), *Doe Run vs. Perú: Lecciones de una demanda injusta*, CooperAcción, Lima, Mayo.
- Defensoria del Pueblo(2012), *Violencia en los conflictos sociales*, Informe Defensorial, No. 156.
- Elstein, Aaron(2011), “Inside Ira Rennert’s dirtiest businesses”, *Crain’s New York Business*, November 27. <http://www.crainsnewyork.com/article/20111127/FINANCE/311279990/inside-ira-rennerts-dirtiest-businesses>(검색일 2014.4.5).
- Escobar, Ramiro(2104), “Reportaje: Protestas en la mira”, *Revista Memoria*, No 13, Instituto de Democracia y Derechos Humanos, PUCP(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pp. 38-44.
- FIDH(2012), *Peru: Metallurgical Complex of La Oroya - When investors’ protection threatens human rights*, FIDH(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December.
- Fraser, Barbara(2011), “Peru: Environmental Health as an Equity Issue - The Case of La Oroya”, in Bamat, Tom, Aaron Chassy, and Rees Warne(eds.), *Extractives and Equity: An introductory overview and case studies from Peru, ANGOLA and Nigeria*, CRS(Catholic Relief Services), Baltimore, MD.
- Gómez, Emma M.(2010), “What is behind the Renco - Doe Run Press Release?”, CooperAcción Press Release, 5 November. <http://www.minesandcommunities.org/article.php?a=10530>(검색일 2013.11.30).
- Harvey, David(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Hilgers, Mathieu(2011), “The three anthropological approaches to neoliberalism”,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61(202), pp. 351-364.
- Hidalgo, Diana(2013), “Reportaje. Industrias extractivas y conflictividad social”, *Revista*

- Memoria*, No 12, Instituto de Democracia y Derechos Humanos, PUCP(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pp. 28-33.
- Kosich, Dorothy(2012), "Peru's La Oroya complex to have new owner in August-Doe Run Peru Administrator", Nov. 14. Mineweb. <http://www.mineweb.com/mineweb/content/en/mineweb-mining-finance-investment-old?oid=162007&sn=Detail>(검색일 2014.3.23).
- Laplante, Corey(2010), *La Oroya: Human rights in conflict*, SPDA, Lima.
- Larner, Wendy(2000), "Neo-liberalism: Policy, Ideology, Governmentality",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63, Autumn, pp. 5-25.
- Mariluz, Omar(2010), "Doe Run se lava las manos", *La República*(2010.6.21). <http://www.larepublica.pe/21-06-2010/doe-run-se-lava-las-manos-0>(검색일 2014.4.15).
- Nelson, Gabriel(2010), "Lead Producer to Pay \$7M Fine, Spend \$65M on Cleanups", October 11. <http://www.nytimes.com/gwire/2010/10/11/11greenwire-lead-producer-to-pay-7m-fine-spend-65m-on-clea-21972.html>(검색일 2014.4.15).
- Ong, Aihwa(2007), "Neoliberalism as a mobile technolog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 32, Issue 1, Jan., pp. 3-8.
- Peck, J., Theodore, N. & Brenner, N.(2009), "Postneoliberalism and its malcontents", *Antipode*, Vol. 41, No. S1, pp. 94-116.
- PWC(2013), *Mining Industry: Doing Business in Peru*, Lima.
- Reutter, Mark(2011), "Ira Rennert is no stranger to controversy", March 8, *Baltimorebrew* (Baltimore area Online Journal). <https://www.baltimorebrew.com/2011/03/08/ira-rennert-sparrows-points-new-owner-is-no-stranger-to-controversy/>(검색일 2014.4.20).
- Rodrik, Dani(2006), "Goodbye Washington Consensus, Hello Washington Confusion? A Review of the World Bank's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Learning from a Decade of Refo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4(4), pp. 973-987.
- Romero, Simon(2009), "In the Andes, a Toxic Site Also Provides a Livelihood", *New York Times*, June 24. http://www.nytimes.com/2009/06/25/world/americas/25peru.html?_r=0(검색일 2014.4.5).
- Scurrah, Martin, Jeannet Lingán, y Rosa Pizarro(2008), "El caso de La Oroya", in Martin Scurrah(ed.), *Defendiendo Derechos y Promoviendo Cambios: El Estado, Las Empresas Extractivas y las comunidades Locales en el Perú*, Lima: IEP; Oxfam América.
- Silva, Eduardo(2009), *Challenging 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Simmons, Beth A., Frank Dobbin, Geoffrey Garrett(2006), "Introduction: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Lib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0, No. 4, pp. 781-810.

Steiner, Keenan(2012), "As Renco's lobbying drive fades, so does congressional support in its dispute with Peru", April, 12. <http://sunlightfoundation.com/blog/2012/04/12/Renco-lobbying-drive-fades-so-does-congressional-support-in-Peru/>(검색일 2014.4.5).

Tucker, Ted(2012), "Renco Group uses Trade Pact Foreign Investor Provisions to Chill Peru's Environment and Health Policy, Undermine Justice", Public Citizen, Analysis, March. <http://www.citizen.org/documents/renco-memo-03-12.pdf>(검색일 2014.5.2).

Valencia, Areli(2012), *Human rights trade-offs in a context of systematic unfreedom: The case of the smelter town of La Oroya, Peru*, Working Paper, No. 15, January, Center for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Bath.

Van den Steen, Tom(2010), *Field trip to La Oroya: Mining and Metallurgy in Junín - The cases of Mororochocha and La Oroya*, 5 March, CooperAcción(Perú) - Diakonia (Sweden).

Weiss, Linda(2010), "The State in the Economy: Neoliberal or Neoactivist?", In G Morgan, J Campbell, C Crouch, O K Pedersen, R Whitely(Eds.),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pp. 183-209.

Wilson, Brian(2008), *Site Visit to the Doe Run Peru La Oroya Metallurgical Complex*, May, Blacksmith Institute.<http://www.worstpolluted.org/files/FileUpload/files/Blacksmith%20Technical%20Mission.pdf>(검색일 2014.5.5).

오 상 교

위덕대학교 공공행정학부
sgoh@uu.ac.kr

논문투고일: 2014년 7월 21일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3일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11일

Corporate Pillage in Neoliberal Peru: The case of Doe Run Peru in La Oroya

Samgyo Oh

Uiduk University,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Oh, Samgyo (2014), Corporate Pillage in Neoliberal Peru: The case of Doe Run Peru in La Oroya.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case of predatory business practices of Doe Run Peru, which is owned by Renco Groups, which is in turn wholly owned by family trusts established by the company's Chairman and CEO, Ira Rennert. Just as Renco companies have been notorious in their environmental records, Doe Run Peru has ignored its environmental obligation by postponing the building of facilities to alleviate air pollution caused by La Oroya metallic complex and by asking to extend the completion of the Environmental Remediation and Management Program (PAMA) several times. When grassroots organizations in La Oroya and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NGOs took on pollution issues, the company first denied the existence of the problem. When confronted with test results showing high levels of lead in residents' blood, the company blamed the hygiene and malnutrition of the local people. When the business got worse in the wake of a decrease in commodities prices in early 2009, the company filed for bankruptcy to avoid additional investments in the PAMA, aiming to keep running the company without paying extra environmental costs. When the people of La Oroya sued the company in Missouri for compensation for the health risks caused by the negligent behavior of the company, the Renco group asked the Peruvian state to pay any expenses incurred by the court decision. The corporate plunder of Doe Run Peru proves that neoliberalism not only does not work as conceived in theory but also allows spaces for predatory practices by companies such as Doe Run Peru. To prevent corporate pillage of this kind, local civil society and NGOs need to be better organized and connected to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and the Peruvian state should strengthen its monitoring and supervising capabilities by reinstating the regulatory power of the state.

Key words Peru, Neoliberalism, La Oroya, Doe Run Peru, Environmental conflicts